2025년, 어느 해보다 '희망'이 절실하다

윤 휘 종의
잠시 쉼표

밝고 희망차게 시작해야 할 새해를 올해처럼 무겁고 비장하게 시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청색을 상징하는 을(乙)과 뱀을 의미하는 사(巳)가 합쳐진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이 경기침체, 정치적 분열, 의정갈등, 양극화 심화, 환경악화 등의 키워드와 함께 시작됐다. 더군다나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에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마음은 더 침울하다.

그래도 2025년 새해의 해는 힘차게 떠올랐다. 과거를 잊으면 안 되지만 과거에 매몰되면 미래는 없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 국정 불안정 해소다. 정치권의 갈등이 불러온 국정 불안정은 행정·외교·국방·산업 등으로 일파만파 파장이 커진 상황이다. 국가신인도 하락은 환율과 국채 신뢰도뿐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가뜩이나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화가치 하락과 신용등급 하락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협치를 펼쳐야 한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집행도 필요하다. 이 역시 정치권이 재정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서라도 조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민생에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특히 추경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조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다툼과 추경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풀뿌리 경제를 망치는 자해행위나 다름 없다.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국회의 지원도 시급하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등 21세기형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를 풀고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미래는 이들 첨단산업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갈등 해소 문제는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빈부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지역갈등 등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외교·국방분야에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당장, 이달 20일에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 2기를 맞는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국방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국방과 수출을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관가는 아노미 상태에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행정부의 업무기강을 세울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는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조용한 게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수사대상에 오르거나 구속돼 지휘계통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

지구온난화 이슈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기온이 14.5도로, 날씨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문제를 등한시하면 우리의 미래는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사안의 결론은 정치권의 리더십으로 향한다. 국정 갈등이 하루 빨리 끝나 2025년이 전화위복의 희망찬 해가 되길 기원해본다. /편집국장 yhj@metroseoul.co.kr

의자 위 고양이, 광장의 사람들

기자 수첩
김 서 현
〈산업부〉

을사년 새해, 어슴프레 해가 밝아오는 때 서울 홍제동 개미마을을 산책하고 있으려니 멀리 버스 정류장 의자에 고양이 세 마리가 옹기종기 앉아있었다. 며칠 전 어머니가 집 앞 버스 정류장 의자가 온열의자로 바뀌었다 말씀하셨던 일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마침 산이라 날이 너무 추운 데 온열의자라도 있으니 고양이들이 좀 낫지 않겠냐고 했다. 그런데 웬 남자가 오더니 고양이들을 쫓아냈다. 앉으려 쫓아냈나 했더니 남자는 그냥 의자를 손으로 슥슥 닦곤 가버렸다. 의자에 앉을 '사람'을 위해서겠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국회의원의 표결이 있던 날, 기자는 광화문의 탄핵 저지 집회와 여의도의 탄핵 찬성 집회를 모두 갔다. 광화문 역에 내리기 무섭게 "여러분은 대한민국 영웅들입니다!"라고 외치는 남자가 있었다. 광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군중이 모여 찬송가를 부르고 탄핵 저지를 외치고 있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같이 휘날리는 풍경 속, 옆에 서있던 또래 여성이 내게 핫팩을 건냈다. "춥죠? 우리 같이 힘을 내봐요."

여의도 역으로 갔을 땐 국회의사당 지붕조차 보지 못한 채 인파에 휩쓸렸다. 반짝이는 갖가지 응원봉과 유머러스한 깃발들이 마치 축제라도 벌이듯 했다. 빈손이라 대충 주먹을 쥐고 흔들었더니 옆 자리 남자가 자신의 응원봉을 주더니 "누나 껀데 가지세요!"라고 했다. 탄핵이 확정 되자 사람들은 얼싸안고 이름 모를 서로와 손뼉을 쳤다. 광화문에서 내게 핫팩을 준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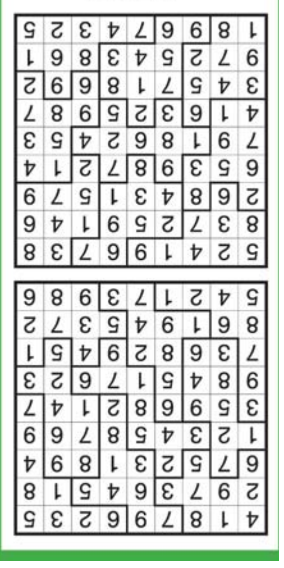
고양이와 의자에 대한 시선이 다르듯, 탄핵이라는 사건도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된다. 개미마을 온열의자를 두고 어머니는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쉼터로 생각했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이 쉬어야 할 곳에 동물이 앉아 더럽혀서는 안 될 의자로 생각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혔다. 온열의자 하나 조차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듯,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사건도 각자의 시선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결국 서로 다른 생각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한다. 다른 생각 속에서 오가는 서로를 위한 선의를 기억하며. /seoh@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4	1			7	3	
			2		9	1		6
	6	8	4	3			7	9
		1				4		
3	4			1	8	6	9	
9		2	5		3			
	8	9				4	3	2

	1	8		9		2	3	5
							1	
		5		3	1		9	
	2	3	4	5				9
9				1	7	6	2	
	3		8	2		4		
	6							
5	4	2		7		9	8	



오늘의 운세

1월 2일 (음 12월 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 **48년생** 근거 없는 칭찬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 **60년생**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다. **72년생** 내 맘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난다. **84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갖자.

37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49년생** 외부활동을 자제. **61년생**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73년생** 삶은 계속되고 꿈꿀 시간은 아직 많다. **85년생** 고민은 건강한 사람도 환자를 만든다고 했다.

38년생 얼룩진 옷을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50년생** 노력 없이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62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74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긴다. **86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자신에게도 신중하게.

39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성공적으로 하던 일을 마무리. **51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3년생**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 **75년생** 과거의 눈높이를 낮추면 직장을 빠르게 구한다. **87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40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는 하루이니 서글프다. **52년생** 자존감은 나를 지켜주는 힘. **64년생** 바라는 일이 없으니 되는 일도 없다. **76년생** 계획을 세워도 실천을 해야 흥망이 있게 마련. **88년생** 소띠와의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41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보면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 **53년생** 고집을 세우면 자식도 외면한다. **65년생** 눈이 빠지게 고대하나 아직은 글쎄. **7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 **89년생** 위궤양의 원인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

4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하니 깊이 생각하고 행동. **54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행운의 날. **66년생** 열정과 힘이 넘치는 하루. **78년생** 자신의 잘못이지 상대의 탓이 아닐 터인데. **90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43년생 마른논에 물들어 오듯이 해결. **55년생** 실사구시(實事求是)가 기본이다. **67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79년생**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니 가는 사람 잊자. **91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일희일비하지 마라.

44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56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8년생** 몸이 멀리 가니 마음도 멀어진다. **80년생**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 일이 풀린다. **92년생** 공들인 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

45년생 조상님께 온정신성(溫?晨省)해야 할 것. **57년생** 가족의 화목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 **69년생**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 **81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로 변한다. **93년생** 삶의 지혜를 살아가면서 배운다.

46년생 행복도 불행도 항상 일어나지 않는다. **58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70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를 신어야 한다. **82년생** 간절히 원하면서 실천하면 천지가 도와주게 되는 삶. **9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 했다.

47년생 멍석이 깔렸으니 모든 역량을 발휘하자. **59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71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나 좋은 일이 있다. **83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니 잠시 지체. **95년생** 지는 잎을 보면 자신의 신세 같아서 서글프다.

김상회의 四季

신년 각오

새롭다는 말은 듣기만 해도 신선하다. 서로 소회는 달라도 새로운 해에 거는 기대는 분명 희망일 것이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명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뒤늦게 레트에 대한 감정이 사랑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래,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뜰거야!"라며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설사 뜻대로 되지 않아 자괴감이 들지라도 자기 최면을 걸 필요가 있다. 스스로 만점은 줄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이만하면 잘했어. 하지만 내일은 더 잘할거야!"라는 각오를 되새긴다면 분명 마음은 긍정의 에너지로 힘을 얻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영어로 1월은 재뉴어리(January)다. 이 재뉴어리의 어원은 그리스· 로마신화의 야누스(Janus)신에서 나온 단어다. 야누스는 얼굴의 반은 과거를 보고 나머지 반쪽은 미래를 본다고 하여 1월 제뉴어리의 어원이 되었다. 더불어 가는 해에 대해 아쉬움과 새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말은 과거와 미래를 함께 하는 현재를 나타내기도 한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것이니,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할 바를 다 한다면 과거나 미래가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완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다. 신년은 음력 정월 초하루인 구정과는 한 달 채 못 미치는 간격으로 을사년 신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을사년은 '푸른 뱀' 천간인 을목(乙木)은 옆으로 뻗는 가지로서 관목에 해당한다. 지지인 사(巳)는 양화(陽火)로서 불기운인데, 천간의 관목을 만나 의지가 타오름이나 지나치면 관목들을 홀라당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 관심 가는 일을 추구하되 스스로를 태워버리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함이 필요한 시간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8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8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